연구논문 ▮ 『항도부산』 제37호, 2019. 2, 463~505 DOI : https://doi.org/10.19169/hd.2019.2.37.463

경제개발 초기 부산제조업에 관한 미시적 분석
-1962년 『부산상공명감』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 대 래*

| 목 차 |

Ⅰ. 서론
Ⅱ. 미시연구의 필요성과 『공장명부』
Ⅲ. 1962년 『부산상공명감』의 분석
Ⅳ. 100대 기업의 분석
Ⅴ. 결론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해인 1962년 초 부산의 제조업에 관한 미시적 연구이다. 『부산상공명감』에 있는 제조업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우선 5인 이상 종사자수를 가지고 있는 부산의 제조업체는 1,393개였고, 평균 고용인원은 약 30명이었다. 공장은 부산진구에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구, 동구, 영도구 순이었다. 부산 제조업 전체의 입지는 여전히 원도심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동별로는 범일동, 부전동에 가장 많았다.

구와 설립 시기는 서로 상관이 있었으며, 업종에 따라 종업원 규모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정 구에 특정업종이 집중되어 있어 구별로 입지하는 업

* 신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 drkim@silla.ac.kr

종에 차이가 있었다. 특정 업종의 경우 특정 동에도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어, 부산의 공업은 발흥 초기부터 클러스터의 경향을 수반하였다.

10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방직업이 34개로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의류제조업 3개까지 합하면 37개가 섬유산업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17개의 고무제품, 12개의 식료품, 8개의 기계로 나타나고 있다. 방직과 의류 그리고 고무를 합하면 54개로 절반을 넘고 있었다.

100대 기업 가운데 정확히 절반인 50개가 부산진구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20개가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었다. 전체 제조업체 수에서는 여전히 원도심이 제조업 중심지처럼 보이지만 10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이미 부산 제조업의 중심은 부산진구와 동래구 쪽으로 거의 이동한 상태였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었던 기업들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해방이후 사명을 바꾸는 등을 계기로 설립연도를 해방이후로 바꾼 것이 많았다.

핵심주제어 : 부산, 제조업, 공장명부, 경제개발계획, 업종, 입지

Ⅰ. 서론

1. 머리말

부산은 1960년대 한국 경공업화 시기를 선도하였던 도시였다. 특히, 한국 공업화 초기의 수출주도 품목이었던 합판, 신발, 섬유 등의 생산과 수출에서 부산은 큰 역할을 하였다. 부연하면, 1970년대 들어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전자 등이 경공업 수출품을 대체하기까지 부산은 한국의 중심 공업도시였다.

이와 같이 부산은 1960년대 한국 초기 공업화를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부산의 경제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많다[1]. 더욱이

1) 부산경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사』,

부산이 어떻게 초기 공업화를 선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경제개발이 시작되었던 1962년도에 주목하여 이 시기 부산 공업의 구조와 특질을 미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부산의 공업은 휴전 이후 전후 복구를 맞아 호황을 누렸지만, 1950년대 후반 극심한 정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침체는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던 1962년에도 계속되었다.[2] 물론 경제개발 초기 한국 경제 전체도 침체는 매우 심각했다.[3] 그런데 부산의 경제는 이러한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부산기업들의 존립 기반 그 자체가 매우 허약했던 것이다.[4]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경제의 비전으로 당시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었다. 하나는 일본기업의 하청을 받아 보세가공을 하는 것이었다.[5] 또

1989, 934쪽에도 경제개발기의 부산경제를 서술하면서 1962년에서 1964년은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다.

2) 실제로 1962년 1~3월 동안 부산제조업의 가동률은 66%에 불과하였고, 7월말에는 57%까지 떨어졌다. 부산상공회의소, 『업종별 공장조업상황 집계표-1962년 상반기-』, 1962, 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공업지대의 하나였다. '벌거숭이 산으로 둘러쌓인 부산은 제재업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크고 고무공업이 집중되고 직물, 제분, 제당업이 발전한 도시이다. 20개의 대기업 그리고 927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부산은 전국 제조업 생산액의 30%를 도맡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동아일보』 1962.2.13.(기사 원문을 의미가 잘 통하도록 약간 수정함).

3) '전국적으로 휘어 접어들고 있는 경기침체상은 이곳 부산에서도 나타나 시중자금 경색현상은 날로 심하여 부산시내 기업체의 78.1%가 사채에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기업체의 부채총액 중 사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 69.7%이고 그 이하가 30.3%이다. 사채의 용도는 대부분 업체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자금에는 불과 18.7%로 장기채의 사채는 비교적 회피하고 있다.' 『경향신문』 1963.4.25.

4) '이들은 허약한 기반위에 있다. 원면, 원당, 원목, 생고무, 수지 등 100% 외국원료에 의존하는 이들은 수입하지 않고는 단 하루를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과잉생산에 빠지고 조업을 단축하고 있다. 목재만 하더라도 현 국내수요의 50%나 과잉이며 직물, 제당, 고무 등도 시설과잉에 빠져 있다.' 『동아일보』 1962.2.13.

5) '이곳 부산의 실업인들에게는 과잉시설의 이용과 외국기술 및 원료로써 동남아 시장을 상대로 한 보세가공무역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세가공에 있어서 고무, 메리야

하나는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함께 입지가 거의 확정된 울산의 중화학공업과 연계하여 공업시설을 활용하거나 확장하는 것이었다.[6]

그러나 어떤 방향이든 부산이 주체성을 가지고 공업화를 추진해 가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부산의 공업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희망어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재 중심 공업도시였던 부산은 이러한 주체성이 결여된 외부의존성으로 인해 그 미래가 밝은 것만으로 기대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 전망의 주요 이유는 당시 수출이라는 타개책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수출은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었고, 부산에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먼저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출 주도에 의해 공업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부산 공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공업 또는 제조업이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던 해인 1962년에 어떤 출발선에 있었는가를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사적 검토

근년에 들어와 부산경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개발 초기 특히 부산 제조업의 미시적 연구는 거의 없다. 거시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미시적 분석을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20세기 부산의 공업을 주제로 한 박영구[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여러 가정 위에서 부산공업의 생산액을 추계하고 그것의 변동을 통해 부산경제의 변동과 특질을 파악한 역작이다. 휴전이후 부흥기에 성장세에 있

쓰, 기계공업 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 1962.2.13.

6) 『동아일보』 1962.2.13.

7) 박영구, 부산의 제조업, 『현대부산의 제조업 1945~2000 : 통계와 발전』, 부산발전연구원, 2005, 제3장. 이 연구는 20세기 부산제조업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인 뛰어난 성과이다.

었던 부산제조업은 1958년 이후 극심한 침체로 접어들었는데, 침체는 1961년까지 계속되었다. 사업체수에서도 감소가 있었는데, 이러한 불황은 부흥기의 제조업 붐에 대한 오판과 당시의 성장산업이던 삼백공업의 몰락 때문이었다[8]. 그러다 경제개발과 함께 부산의 제조업은 성장으로의 탄력적인 전환을 이루면서 급속히 성장하여갔다.

통계청의 자료를 기반으로 경제개발이 막 시작된 1963년 이후 전국과 부산의 제조업을 분석한 김대래는 1963년에서 1974년까지 부산의 제조업체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던 반면, 종사자수와 생산액 등은 꾸준히 증가하여 사업체당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부산 제조업의 사업체수의 전국 비중은 1960년대를 통하여 낮아졌지만 다른 지표들은 상승하거나 대체로 1963년의 비중을 유지하여 1960년대를 통하여 부산제조업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9].

한편 김호범 외 연구진은 20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시계열을 작업하면서 1960년대 초 이래 부산 제조업 통계를 작성하고 약간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 사업체수는 1960년 1,423개, 1961년 1,414개, 1962년 1,397개 그리고 1963년 1,31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1962-1969년 사이 제조업 종사자수는 연평균 19.55%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1964년에는 4.16% 감소하다가 1965년

8) 박영구, 앞의 책, 2005, 208~218쪽.

9) 김대래, 『부산의 산업과 경제』, 누리, 2017, 제1장 및 제2장 참조. 제조업에 대한 통계청의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는 1963년부터 부산의 제조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1963년도 부산의 제조업사업체수는 1,981개, 월평균종사자수는 69,025명으로 전국비중에서 사업체수는 10.1%, 종사자수 14.9%, 생산액 16.9%, 부가가치 13.7%였다. 사업체수가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은 1960년대 후반까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1970년대 중반까지도 높아지지 않았다. 그러다 1975년부터 1963년의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1982년 12%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광공업 종사자수의 비중은 1977년이 17.5%로 정점이었다. 부산 광공업 생산액 비중은 1967년 19.3%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생산액 비중의 정점이었다. 부산광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66년이 정점이었다. 김대래, 『부산의 산업과 경제』, 누리, 2017, 75쪽.

50.09%의 엄청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 사업체 수는 1964년에 1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는데 1961-1963년에는 감소하거나 극도로 정체되었다고 이해하였다[10].

그 동안 자료의 한계로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이상의 연구들이 가지는 성과도 작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각 연구에서 주장하는 통계와 해석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좀 더 다양한 연구에 의해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 거시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산 제조업의 미시적 특성을 밝히는 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즉 업종별·지역별 세부 자료를 토대로 부산제조업의 구조적·공간적 특성을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 관한 미시적 연구성과로는 배석만과 차철욱의 연구가 있다. 배석만[11]은 부산의 주요기업이었던 조선방직과 대한조선공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업종별 기업의 변화와 고무공업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차철욱은 해방 후 무역이 한국공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특히 부산인견직물업의 성장과 쇠퇴에 관해 연구를 하였다[12]. 그리고 연구성과는 아니지만 조사 자료를 정리하면서 경제개

10) 김호범·장지용 외, 『20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이해와 부산경제의 변동분석』, 부산광역시, 2004, 300쪽. 사업체수와 함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급여액, 출하액 등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1963년 부산 제조업 사업체수는 1,981개로 이 자료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대래, 앞의 책, 62쪽 참조.

11) 배석만, 「1950년대 대한조선공사의 자본축적 시도와 실패 원인」, 『부산사학』 25·26 합집, 1994; 「해방후 조선방직의 경영과 그 성과」, 『지역과 역사』 9, 2001; 「1950년대 부산 고무공업의 구조변화」, 『역사와 현실』 44, 2002; 「조선중공업주식회사의 전시경영과 해방 후 재편과정」, 『역사와 경계』 60, 2006; 「해방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공업구조의 변화」, 『항도부산』 16, 2000.

12) 한국전쟁기 피난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부산에서 급속히 성장하였던 인견직물은 휴전과 생산지역의 전국화로 판로의 위축, 원료가격의 상승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쇠퇴하고 그 대안으로 나일론 직물업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차철욱, 「1950년대 대일

발 초기 부산의 제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도 참고가 된다. 중소기업은행[13]에서 발간한 『광업제조업 사업체조사보고』는 광역시 도별로 집계한 업종별·규모별 제조업 통계를 상세히 싣고 있다. 비록 개별적인 기업의 정보는 없지만 각 지역의 제조업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시 중소기업은행에서 발행한 『광업 제조업 사업체명부』[14]는 개별 기업에 대한 자료와 함께 집계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부산제조업체수는 전국의 10.4%였다. 물론 업종에 따라 편차는 컸다. 고무제품업체의 31.3%가 부산에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의 비중이 높았던 업종은 화류(靴類)및의복업으로 25.1%에 달했다. 피혁및동제품 18.6% 그리고 제1차금속제조업이 15.7%의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경제개발이 시작될 무렵 부산은 업종별 사업체수의 비중에서 볼 때 고무, 의복, 피혁 그리고 금속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

Ⅱ. 미시연구의 필요성과 『공장명부』

1. 미시연구의 필요성

해방에서 1960년대 전반까지의 연구에서 가장 큰 애로는 자료의 부

수입구조와 부산 인견직물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4, 2002, 196쪽. 그러나 나일론 공장은 대구를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여 대구가 신섬유 산업도시가 되는데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의 인견직물업은 빠르게 쇠퇴하였다.

13) 중소기업은행, 『광업 제조업 사업체조사보고』, 1962, 서문.

14) 중소기업은행, 『광업 제조업 사업체명부』, 1964.2. 이 자료는 1962년 말 기준으로 조사를 하였다. 1962년 말 부산에는 1,543개의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 『광업 제조업 사업체명부』는 조사시점이 1962년 말로 되어 있어 1962년 광공업 센서스의 기초자료였던 것 같다.

족이다. 이 시기에는 자료의 생산 자체가 매우 적었고 규칙적이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경제를 파악하는 가장 핵심자료인 광공업센서스자료는 해방이후에서 경제개발시작까지 1955년, 1958년, 1960년 그리고 1962년의 4회만이 발행되었을 뿐이다.[15]

게다가 부산은 1963년에 직할시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통계와 설명들이 경남에 포함되어 나왔기 때문에 부산만의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경남의 자료에서 부산의 몫을 분리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인구나 기타 다른 지표를 고려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에는 오차가 따르기 마련이다.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에도 자료는 여전히 부실하고 상당한 기간과 부문이 공백으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한 광공업 자료의 경우 1963년 자료가 나온 이후 2년 동안 다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1966년이 되어서야 일관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된다. 이러한 자료의 문제로 인해 부산경제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거시적 집계량은 대부분의 시기에 거의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시적 연구이다. 우선 미시적 자료를 집계하면 총량적 자료가 된다. 이것은 지역의 총량적 집계자료를 만들어내고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다.

또한 미시적 자료는 총량적 지표에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총량적 자료의 변동을 통해서 큰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구조와 특질은 미시적 변동을 분석할 때 제대로 알 수 있다. 일례로 산

15) 1955년은 한국은행, 1958년은 산업은행, 1960년은 상공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1962년은 중소기업은행의 주관하에 조사되고 발간되었다. 중소기업은행, 앞의 책, 1962, 서문.

업 및 업종별 생산과 종업원수[16] 그리고 자본금 등에 관한 정보는 특정 시기 지역의 경제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핵심적인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자료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연구를 진척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는 다양한 미시적 정보를 담고 있는『공장명부』를 활용하는 것이다.『공장명부』는 전국 및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부정기적이지만 여러 형태로 발간되었다. 발간된『공장명부』를 전부 모을 경우 거의 매년도의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의 경우 종업원수를 비롯하여 다른 자료에서는 얻기 힘든 다양한 개별적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유용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공장명부』가 그 동안 별로 이용되지 않았던 것은 이용의 번거로움 때문이었다.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이것을 분석가능 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조롭고 힘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무엇보다 모든 자료를 엑셀로 옮기고 이것을 코딩을 하고, 통계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과거자료의 경우 모두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한자에 익숙하지 않으면 자료를 보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는 것도 이용을 막은 이유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공장명부』자료를 이용하여 경제개발이 시작되는 시기의 부산 공업구조를 미시적으로 파악하여 보려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 거시적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던 부산 공업 연구에 새로운 연구방법의 도입과 함께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6) 공식적으로는 종사자수가 정확하다. 경영자도 종사자수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종사자수와 종업원수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2. 자료로서의 『공장명부』

물론 『공장명부』가 자료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조사의 정밀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조사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업체수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종업원수 몇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사결과는 매우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공장명부』는 일제시대부터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거나 고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조사시점에서 5인 이상이 아닌 3명이나 4명을 고용한 업체도 다수 조사에 포함될 때가 있는데, 이에 따라 조사업체수가 차이가 날 수 있다[17].

이와 함께 조사 대상 업종이 달라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제과점이나 양복점 등은 종종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포함되어 조사되기도 한다. 그럴 경우 제조업체수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조사대상 업종을 면밀하게 대조를 하지 않으면 특정 연도의 사업체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 할 수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많은 결측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연구자료로서의 치명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종업원수에 대한 정보를 싣고 있지 않은 경우 자료의 가치는 매우 떨어진다. 거의 대부분의 『공장명부』가 생산액을 싣지 않고 있다. 이것은 개별기업의 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산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액의 대변수로서 종업원수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18], 이럴 경우 최소한 종업원수에 관한 정보는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정보가 누

17) 일부 자료의 경우 10인 이상 고용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종사자수를 조정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면 상당한 오류가 난다.

18) 즉 생산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규모나 성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수를 대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립적 기술진보를 가정한 생산함수가 전제된다.

락된 것이 많다면 자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경제개발 초기인 1962년 전후 부산의 제조업 정보를 싣고 있는『공장명부』를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이 4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전국기업체총람』은 조사대상 기준월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발간연도로 보아 조사시점이 1961년 말로 이해된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간행한『부산상공명감』은 조사시점이 1962년 2월이고, 대한상의가 1963년에 발간한『전국기업체총람』은 1962년 말 자료로 사료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에서 1964년에 발간한『광업제조업사업체명부』는 1962년 말 조사자료이다.

이 4개의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를 <표 1>에 비교하여 놓았다. 종사자수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3개이고 부산상의 조사자료는 4명 이상 업체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 조사의『광업제조업사업체명부』는 종업원수에 관한 정보를 담지 않고 있어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대한상의가 발행한『전국기업체총람』자료는 1961년 말 자료라는 점에서 시점은 가장 분석에 적합하였지만 결측치가 지나치게 많고 누락된 기업체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결국 부산상의가 조사한『부산상공명감』(1962)과 대한상의가 발간한『전국기업체총람』(1963) 자료로 압축되었다. 그런데 본고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되기 직전의 부산제조업 상황이기 때문에 1962년 말보다는 1962년 초의 자료가 더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부산상공명감』1962년판에는 다른 자료에서는 구할 수 없는 기업의 설립연도와 자본금을 같이 싣고 있어 정보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보았다. 따라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부산상공명감』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로 하였다. 다만『부산상공명감』자료의 경우 4인 이상 종사자수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기에 실제 분석에서는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로 한정하여 다른 조사자료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상공명감』의 경우 제조업 이외의 사업체도 원래는 포함하고 있지만 제조업 사업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1> 1962년 전후 『공장명부』의 비교

명부명/기관/발간연도		조사 시점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생산품	종업원수	자본금	설립연도	회사구분	기준
1	전국기업체총람 (대한상의/1962)	1961.?	◎	◎	◎	◎	◎	◎			△	5인
2	부산상공명감 (부산상의/1962)	1962.2	◎	◎	◎	◎	◎	◎	◎	◎	△	4인
3	전국기업체총람 (대한상의/1963)	1962.?	◎	◎	◎	◎	◎	◎			△	5인
4	광업 제조업 사업체명부(중소기업은행/1964)	1962.12	◎	◎	◎		◎				△	5인

그리고 이 시기까지 아직 제조업 분류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각 『공장명부』 마다 제조업을 분류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후기로 갈수록 대분류수가 많아지고 중분류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분류와 중분류가 구분이 되는 것은 1955년 자료부터인데, 1954년 한국은행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작성[19]한 것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이후 『공장명부』는 대분류의 수가 많아지면서 중분류와 명확히 구분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의 개수는 여전히 들쑥날쑥하다.

그러다 1962년 말에 나온 한국표준산업분류[20](광업제조업)에서 20

19)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표준산업분류』, 1962, 머리말 참조.
20) 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196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1963년 3월 12일 경제기획원고

개의 대분류와 108개의 중분류로 정리되기에 이르렀다[21].

따라서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 사이의 제조업 분류는 매우 다양하고 명칭도 통일되지 않았다. 일례로 위의 대한상의가 발간한『전국기업체총람』(1962) 자료는 11개, 부산상의의『부산상공명감』(1962)은 16개, 대한상의의『전국기업체총람』(1963)은 19개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의『광업제조업사업체명부』(1964)도 19개의 제조업 업종분류를 보이고 있다.

Ⅲ. 1962년『부산상공명감』의 분석

1. 빈도분석

1962년『부산상공명감』[22]에는 1,815개의 사업체가 실려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체가 있는 업종은 의류공업의 269개로 전체의 14.8%였다. 그리고 그 다음은 228개의 기계공업이었다. 그 뒤를 224개

시 제10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광업 및 제조업의 표준기준을 설정하였는데,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었다. <관보>, 제3394호. 그리고 1964년 4월 7일 경제기획원고시 제13호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비제조업 분류를 설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관보>, 제3706호.

21)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는 이후 1970년에 다시 9개 대분류로 복귀하였다가 1991년에 국제표준산업분류 제3차 개정을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6차 개정에 따라 다시 23개 대분류로 되었다.

22) 이 자료의 간행목적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의욕과 희망에 가득 찬 제1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힘찬 시발점에서 동 계획을 성공적으로 촉진하고 나아가 부산의 지역사회경제개발과 상공업 개선발전에 기여할 획기적인 계기에서 본 회의소에서는 상공회의소 신법에 의하여 조사된 시내 상공업자 실태대장을 정리 수록하여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방산업 조장책 수립에 이용토록 함은 물론 상공업자 상호간의 종적 및 횡적 연락의 긴밀을 도모하고 취급상품 신용관계 등을 연결 강화케 하여 기업운영의 합리성과 경영활동상 참고에 자(資)하고자 본 명감을 발행하는 바이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공명감』, 1962, 서문.

의 방직업, 216개의 식료품공업이 뒤를 잇고 있었다. 의류, 기계, 방직 그리고 식료품의 4대 업종 사업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 제조업 대분류는 16개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 적은 사업체를 가진 업종은 제지및동제품으로 26개였다. 그 다음으로 피혁및동제품 업종 사업체가 50개로 2.8%였다.

그런데 1,815개 사업체 가운데에는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제시기부터 일반적으로 공장은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업체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23]. 또한 종업원수가 나와 있지 않은 업체도 상당히 있는데, 이런 업체의 경우 대체로 영세한 업체들이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4인 이하가 종사하고 있거나 종업원수가 나와 있지 않은 기업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2> 1962년『부산상공명감』의 제조업 업종별 분류(4인 이상/개, %)

	식료품	음료품	방직	의류	제재및목제품	제지및동제품	인쇄출판	피혁및동제품	전체
빈도	216	52	224	269	85	26	74	50	1,815
퍼센트	11.9	2.9	12.3	14.8	4.7	1.4	4.1	2.8	100

	화학	고무	유리및토석	연료	금속제품	기계	전기기기	기타	전체
빈도	136	57	56	53	163	228	58	68	1,815
퍼센트	7.5	3.1	3.1	2.9	9.0	12.6	3.2	3.7	100

그렇게 하여 제조업 대분류에 의해 정리한 결과 1,393개의 사업체가 업종별로 정리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방직업 209개 15%, 식료품제조업

23) 실제로 1962년『부산상공명감』자료의 경우 다른 자료에 비해 사업체수가 많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상시종업원이 4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200개 14.4%, 의류제조업 173개 12.4%, 기계제조업 168개 12.1%의 순이었다. 상위 4개 업종의 비중은 53.9%로 4인 이하 및 종업원수가 없는 업종을 포함하였을 때보다 더 높았다. 피혁및동제품은 17개로 구성비는 1.2%였고, 제지및동제품은 20개로 1.4%였다.

<표 3> 1962년『부산상공명감』의 제조업 업종별 분류(5인 이상/개, %)

	식료품 제조업	음료품 제조업	방직업	의류 제조업	제재및 목제품	제지및 동제품	인쇄 출판	피혁및 동제품	전체
빈도	200	51	209	173	70	20	37	17	1,393
퍼센트	14.4	3.7	15.0	12.4	5.0	1.4	2.7	1.2	100

	화학 공업	고무제품 제조업	유리및 토석	연료 공업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제 조업	전기기지 제조업	기타 제조업	전체
빈도	113	53	43	34	134	168	32	39	1,393
퍼센트	8.1	3.8	3.1	2.4	9.6	12.1	2.3	2.8	100

한편 제조업 중분류는 31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기준에 따른 업종별 구성을 보면 방직업이 11.6% 162개 기업으로 가장 많고 철강및금속제품이 105개 기업에 7.5%, 기타화학이 90개 기업 6.5%, 기타식품제조업이 85개 기업에 6.1%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표 4> 중분류 업종별 사업체수(개, %)

업종	도정및 제분업	제과및 제이업	어육류 제조업	장유 제조업	한천 제조업	기타식품 제조업	방직업	표백및 염색업
빈도	58	64	13	24	7	85	162	47
퍼센트	4.2	4.6	0.9	1.7	0.5	6.1	11.6	3.4

업종	메리야쓰 제조업	양복 제조업	양재점	샤쓰 제조업	기타 의류	제재업	목제품 제조업	제지및 동제품
빈도	67	48	15	13	30	50	20	20
퍼센트	4.8	3.4	1.1	0.9	2.2	3.6	1.4	1.4

업종	인쇄출판	피혁및 동제품	약품 제조업	기타 화학	고무화	고무 제품	유리및 토석	연료
빈도	37	17	23	90	29	24	43	34
퍼센트	2.7	1.2	1.7	6.5	2.1	1.7	3.1	2.4

업종	철강및 금속제품	비철 금속	일반 기계	운수 기계	전기 기기	인조빙	기타 제조업	전체
빈도	105	29	101	67	32	9	30	1,393
퍼센트	7.5	2.1	7.3	4.8	2.3	0.6	2.2	100

종사자수의 전체 평균은 38.5명이었다. 그런데 대한석탄공사부산지점[24]이 10,000명의 종사자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수치이다. 1,393개 사업체 전체의 종사자수가 53,593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종사자의 18.7%에 해당하는 큰 값이다. 이 값은 본사전체의 종사자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장명부』에 공기업이 실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한석탄공사부산지사의 종사자수를 제외하면 전체 제조업 종사자수는 43,493명으로 평균은 약 7.2명이 감소된 31.3명이 된다[25]. 1962년 부산제조업 평균 종사자수는 30명 정도였다고 보여진다.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를 보면 대분류 기준의 경우 연료공업(308.7명), 고무제품(119.4명), 전기기기(77.9명) 그리고 방직업(56.9명)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24)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광산을 개발하여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1950년 5월 4일에 공포된 「대한석탄공사법」[법률 제137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대한석탄공사 부산지사는 1957년부터 1996년까지 남해안 지역의 해상 공급 기지로서 선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60년부터 1975년까지는 본사에서 담당하던 판매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다. 그리고 무연탄 수입과 함께 무연탄의 통관, 하역, 저탄 관리 업무 역시 수행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석에서 대한석탄공사부산지사를 제외하지는 않았다. 종사자수의 평균과 같이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만 별도로 취급하였다.

연료공업의 경우 대한석탄공사부산지점(10,000명)으로 인한 돌출임을 감안하면 업종 전체적으로는 고무공업과 전기기기 그리고 방직업의 규모가 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무제품의 경우 전체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의 4배가 넘는 종사자수를 가지고 있어 이미 이 시기 고무제품공업에는 규모의 대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6>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명)

업종	평균	빈도	표준편차	업종	평균	빈도	표준편차
식료품제조업	16.2	200	31.5	화학공업	31.1	113	63.2
음료품제조업	16.5	51	13.3	고무제품제조업	119.4	53	280.5
방직업	56.9	209	183.4	유리및토석	44.4	43	106.4
의류제조업	16.6	173	17.4	연료공업	308.7	34	1712.5
제재및목제품	24.2	70	72.8	금속제품제조업	18.6	134	18.1
제지및동제품	20.5	20	27.6	기계제조업	24.2	168	68.5
인쇄출판	12.7	37	7.9	전기기기제조업	77.9	32	234.0
피혁및동제품	11.6	17	12.4	기타제조업	17.4	39	15.1
전체	38.5	1,393	287.8	전체	38.5	1,393	287.8

중분류 기준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를 보면 대분류에서 확인하였던 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무화의 평균 종사자수는 185.3명으로 전기기기 77.9명, 방직업 67.5명, 어육류제조업 45.3명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평균종사자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양재점 6.7명, 양복제조업 9.1명, 장유제조업 10명, 목제품제조업 10.4명, 한천제조업 11.1명, 피혁및동제품 11.6명으로 10명 내외의 평균 종사자수를 가진 업종도 적지 않았다. 한편 제재업의 평균 종사자수는 29.8명으로 합판산업의 평균규모는 아직까지 큰 것은 아니었다.

<표 7> 중분류 기준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명)

중분류	평균	빈도	표준편차	중분류	평균	빈도	표준편차
도정및제분업	16.6	58	43.6	인쇄출판	12.7	37	7.9
제과및제이업	15.9	64	25.7	피혁및동제품	11.6	17	12.4
어육류제조업	45.3	13	46.6	약품제조업	22.9	23	16.7
장유제조업	10.0	24	7.1	기타화학	33.2	90	70.2
한천제조업	11.1	7	3.2	고무화	185.3	29	365.2
기타식품제조업	14.0	85	13.7	고무제품	39.8	24	58.7
방직업	67.5	162	206.9	유리및토석	44.4	43	106.4
표백및염색업	20.3	47	24.7	연료	308.7	34	1712.5
메리야쓰제조업	20.2	67	15.9	철강및금속제품	19.5	105	18.9
양복제조업	9.1	48	9.1	비철금속	15.6	29	14.6
양재점	6.7	15	2.8	일반기계	16.6	101	28.5
샤쓰제조업	24.6	13	35.1	운수기계	35.7	67	102.1
기타의류	22.1	30	18.6	전기기기	77.9	32	234.0
제재업	29.8	50	85.6	인조빙	26.2	9	23.4
목제품제조업	10.4	20	7.1	기타제조업	14.8	30	10.9
제지및동제품	20.5	20	27.6	전체	38.5	1393	287.8

구[26]별 사업체수의 분포를 보면 부산진구가 2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구 19.9%, 동구 17.7%, 영도구 14.4%의 순이다. 단일 구로는 부산진구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비중이 63.3%로 부산 제조업 전체의 입지는 여전히 원도심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표 8> 사업체의 구별 분포(개, %)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서구	영도구	중구	전체
빈도	247	112	400	156	201	277	1393
퍼센트	17.7	8.0	28.7	11.2	14.4	19.9	100

26) 부산시는 1957년 1월 1일부로 구제를 실시하였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의 6개 구가 설치되었다.

사업체의 동별 분포를 보면 범일동이 127개, 부전동이 93개로 두 동에만 15.8%인 220개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었다. 이어 많은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동은 부평동 67개, 초량동 63개, 전포동 57개, 남항동 56개, 수정동 56개, 충무동 55개, 범천동 55개, 봉래동 49개 그리고 대교동 45개 순이었다. 상위 10개 동에 입지하는 사업체수의 비중은 48.5%에 이르며, 상위 11개 동의 사업체수 비중은 51.7%였다. 단 하나의 사업체라도 입지하고 있는 동의 수는 74개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장은 일부의 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 9> 사업체의 동별 분포(개, %)

동	빈도	퍼센트	동	빈도	퍼센트	동	빈도	퍼센트
가야동	16	1.1	반여동	4	0.3	안락동	5	0.4
감만동	3	0.2	범2동	8	0.6	암남동	5	0.4
개금동	1	0.1	범3동	1	0.1	양정동	20	1.4
거제동	35	2.5	범4동	3	0.2	연산동	6	0.4
광복동	25	1.8	범일동	127	9.1	연지동	9	0.6
광안동	2	0.1	범전동	5	0.4	영선동	25	1.8
괴정동	3	0.2	범천동	55	3.9	영주동	12	0.9
낙민동	9	0.6	보수동	32	2.3	온천동	8	0.6
남부민동	19	1.4	복천동	4	0.3	완월동	7	0.5
남천동	8	0.6	봉래동	49	3.5	용당동	1	0.1
남포동	14	1.0	부곡동	4	0.3	우암동	4	0.3
남항동	56	4.0	부민동	6	0.4	장전동	5	0.4
당감동	16	1.1	부암동	14	1.0	적기동	1	0.1
대교동	45	3.2	부용동	6	0.4	전포동	57	4.1
대신동	1	0.1	부전동	93	6.7	동천동	38	2.7
대연동	2	0.1	부평동	67	4.8	중동	1	0.1
대창동	20	1.4	서대신동	23	1.7	중앙동	15	1.1
대청동	12	0.9	선리	1	0.1	창선동	18	1.3
대평동	31	2.2	성지동	4	0.3	청학동	7	0.5
동광동	11	0.8	수민동	1	0.1	초량동	63	4.5

동대신동	20	1.4	수안동	4	0.3	초읍동	3	0.2
두구리	1	0.1	수영동	2	0.1	초장동	6	0.4
명륜동	12	0.9	수정동	56	4.0	충무동	55	3.9
문현동	23	1.7	신창동	27	1.9	토성동	17	1.2
민락동	1	0.1	아미동	7	0.5	소계	1,377	98.9
결측	16	1.1	계	1,393	100	계	1,393	100

설립연도를 기간별로 보면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것은 60개로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방직후기라 할 수 있는 1945-1949년 사이에 14.1%, 한국전쟁기(1950-1953)에 264개, 전후복구기(1954-1959)에 573개 그리고 경제개발준비기(1960-1961)에 227개가 설립되었다. 전체의 57.4%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사업체가 60개에 불과한 것은 과소평가된 것으로 이해된다[27]. 해방직후 귀속사업체는 접수·관리·불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기에는 거의 사유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해방후 사명을 바꾸면서 설립일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서술할 것이다.

<표 10> 설립기간별 사업체수(개, %)

	1900-1944	1945-1949	1950-1953	1954-1959	1960-1962	소계	결측	계
빈도	60	196	264	573	227	1320	73	1393
퍼센트	4.3	14.1	19.0	41.1	16.3	94.8	5.2	100

27) 해방이후의 혼란과정에서 많은 귀속사업체들이 유실되었지만 1962년 현재 한국인이 설립한 기업을 포함하여 일제하에서 설립된 사업체가 60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많이 어긋나 보인다. 해방직후 3년이나 지나 정리된 귀속사업체 명부에 부산기업 426개가 실려 있다. 426개 중에는 약간의 상업관련 회사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제조업체였다. 조선은행조사부, 『경제연감』, 1949, Ⅲ-79～147쪽.

종업원수를 규모별로 보면 5명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282개로 20.2%에 달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 5개 중 1개는 5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이었다. 6-9명을 고용하는 사업체도 293개에 이르렀으며 10-19명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380개로 27.3%에 이르렀다. 20-49명 고용 사업장은 282개였고 50-299명 고용 사업체는 137개였다. 한편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300명 이상 고용업체는 19개에 불과하였다.

종사자가 9명 이하인 기업을 영세기업, 10-19명을 소기업, 20-49명을 중기업, 그리고 50-299명을 중견기업이라 한다면 1962년 초 부산제조업은 68.5%의 기업이 소기업 이하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기술력이 낮은 시기에는 노동력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수가 적었던 것은 그 만큼 기업들이 영세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 초기에 이미 그 대극에는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표 11>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수(개, %)

	5	6-9	10-19	20-49	50-299	300+	전체
빈도	282	293	380	282	137	19	1393
퍼센트	20.2	21.0	27.3	20.2	9.8	1.4	100

한편 자본금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보면 2백만환 이하가 13.8%, 2백만-4백만환 사이가 7.7%, 4백만-6백만환 사이가 10.5%, 6백만-1천만환 사이가 12.4%의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4천만환 이상의 비중은 8.5%였다[28].

28) 한국전쟁기 부산에서 이루어진 화폐개혁은 100원을 1환으로 하여 신권과 구권을 교환하여 주었다. 이후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6월 9일 저녁 밤 10시에 '긴급통화조치'를 발표하였는데, 화폐단위를 환화에서 다시 원화로 바꾸고 10환=1원으로 1/10의 명목절하를 하였다. 1962년 4월에 발간된 1962

<표 12> 자본금 규모별 사업체수(환, 개, %)

	1-2,000,000	2,000,001-4,000,000	4,000,001-6,000,000	6,000,001-10,000,000	10,000,001-20,000,000
빈도	192	107	146	173	147
퍼센트	13.8	7.7	10.5	12.4	10.6

	20,000,001-40,000,000	40,000,001 이상	소계	결측	계
빈도	87	118	970	423	1,393
퍼센트	6.2	8.5	69.6	30.4	100

2. 교차분석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약간의 특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주로 명목변수 사이에서 시행하는 것이어서 설립연도, 종업원수 그리고 자본금도 일정구간별로 변수변환을 하였다. 우선 설립기간을 변수로 하는 교차분석을 한 결과 업종과 설립기간 사이에는 피어슨 카이제곱값이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업종에 따라 설립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기업의 비중이 많이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기간과 업종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각 업종의 사업체들이 각각의 시기에 설립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일제강점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설립된 업종은 음료품공업(20.8%), 인쇄출판(11.1%), 전기기기제조업(9.4%) 등이었다. 즉 음료품공업의 경우 20.8%가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었는데, 다른 업종에 비해 일제강점기의 설립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해방직후인 1945-1949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많이 설립된 업종은 식료품제조업(16.8%), 고무제품

년판『부산상공명감』의 자본금은 화폐개혁 이전의 단위인 환으로 이해된다.

(25.5%), 유리및토석(30.2%), 기계제조업(22.7%) 등이었다. 전후복기인 1954-1959년 사이에는 제지및동제품(50%), 연료공업(58.8%), 의류(51.5%)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립되었고, 1960년 이후에는 제지및동제품(35%), 기타제조업(28.9%) 등이 다른 업종에 비해 이 기간에 높은 설립비중을 보였다.

설립기간과 구(區)의 교차분석도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구별로 사업체들이 설립된 기간의 비율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영도구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해방직후 설립비율이 높았다. 중구와 동구도 해방직후 설립된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후 복구기에 집중적으로 기업설립이 있었는데, 서구, 중구 그리고 부산진구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경제개발준비기인 1960년 이후에는 동래구, 동구 그리고 부산진구에서 그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다.

<표 13> 교차분석 결과표

변수	분류	χ^2	유의확률값	연구가설
설립연도	업종	140.0	.000	채택
설립연도	구	62.0	.000	채택
설립연도	종업원수	22.2	.330	기각
설립연도	자본금	26.1	.346	기각

한편 설립연도와 종업원수 그리고 설립연도와 자본금 사이에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즉 설립이 이르거나 늦을수록 종업원수가 적거나 많은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설립이 늦거나 이르거나 상관없이 자본금도 대응하였다.

종업원규모를 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먼저 종업원수와 업종간의 교차분석에서는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즉

업종에 따라 종업원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재및목제품의 경우 5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비중이 42.9%였고, 식료품공업은 42%에 이르렀다. 반면 방직업은 5명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7.7%에 지나지 않았으며 고무제품제조업도 7.5%였다. 6-9명을 고용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피혁및동제품(35.3%), 인쇄출판(35.1%)이었고, 10- 19명을 고용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연료공업(50%), 인쇄출판(40.5%) 등이었다. 20-49명 고용비중이 높은 업종은 방직업(36.4%), 제지및동제품(30%), 기타제조업(30.8%)이었고, 50-299명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고무제품제조업(34%), 방직업(22.5%), 유리및토석(20.9%)이었다. 한편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고무제품 7.5%, 전기기기 6.3%였다.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는 19개였는데 이 가운데 5개가 방직업, 4개가 고무제품제조업이었다. 즉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의 절반이 방직업과 고무제품에 있었다. 제재및목제품의 경우 전체 사업체수는 적은데 비해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2개 있어 이미 일부 기업은 경제개발 시작 전에 규모를 상당히 키우고 있었다.

<표 14> 교차분석 결과표

변수	분류	χ^2	유의확률값	연구가설
종업원수	업종	355.1	.000	채택
종업원수	구	115.5	.000	채택
종업원수	자본금	296.9	.000	채택
자본금	업종	156.8	.000	채택

규모별 종업원수와 구(區)간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와 종업원수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이다. 5명을 고용하는 업체의 비중은 중구(31%)와 동구(25.5%)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반면, 20-49명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에서는 영도구(24.9%)와 부산진구(24%)가 높았고, 50-299명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에서는 동래구가 21.4%로 현저하게 높았으며 그 다음이 16.5%의 부산진구로 다른 구에 비해 많이 높았다.

규모별 종업원수와 구간별 자본금 사이의 교차분석 결과는 당연하지만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자본금 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이 교차분석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2백만환 이하의 자본금을 가진 사업체의 21.9%는 5명의 종사자를 둔 사업체였고, 2백만-4백만환 사이의 자본금을 가진 업체의 14%가 5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반면 50-299명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5.7%에 불과하였다. 반면 4천만환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업체의 39%는 50-299명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다. 자본금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크고 그러면 당연하게 종사자수도 커진다는 것을 교차분석은 말해준다.

한편 자본금을 변수로 하여 대분류 업종을 교차분석한 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업종에 따라 자본금규모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백만환 이하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기타제조업(36.4%), 제재및목제품(31.4%), 유리및토석(29.4%)이었으며, 2백만-4백만원 사이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인쇄출판(29%), 피혁및동제품(27.3%)이었다. 의류제조업은 6백만-1천만환 규모에서 25.5%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고, 1천만-2천만환 규모에서는 기계제조업이 26.7%로 가장 높았다. 2천만-4천만환 규모에서는 방직(17.5%), 화학(11.6%)의 비중이 높았다. 4천만원 이상에서는 화학 21.1%, 고무제품 18.8%의 순이었다.

<표 15> 교차분석 결과표

변수	분류	χ^2	유의확률값	연구가설
구	업종(대분류)	536.4	.000	채택
구	업종(중분류)	869.6	.000	채택
동	업종(대분류)	2,288.7	.000	채택
동	업종(중분류)	4,784.1	.000	채택

구와 대분류 업종간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입지하는 업종에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식료품공업은 중구(29.5%), 방직업은 부산진구(57.4%), 의류제조업은 중구(37.6%), 제지및동제품은 중구(35%), 인쇄출판은 중구(54.1%), 화학공업은 부산진구(31.9%), 고무제품은 부산진구(52.8%), 금속제품은 영도구(30.6%), 기계제조업은 영도구(41.7%) 그리고 기타제조업은 중구(48.7%) 등으로 구별로 입지하는 업종에 차이가 있었다.

구와 중분류기준 업종과의 교차분석도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도정및제분업은 동구(31%), 제과및제이업은 중구(46.9%), 어육제조업은 영도구(46.2%), 방직업은 부산진구(53.7%), 양복제조업은 중구(72.9%), 양재점은 중구(66.7%) 등 각 업종에서 특정구에 집중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을 변수로 하여 업종과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 대분류 및 중분류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업종별 사업체는 특정동에 더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분류 기준 업종의 동별 집중도를 정리한 것이 <표 16>이다. 식료품과 음료품은 제품의 속성상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은 부평동과 범일동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피혁및동제품의 경우 남포동에 29.4%가 집중되어 있으며 고무제품은 범일동에 24.5%가 집중되어 있

다. 부산의 제조업은 경제개발시행 이전에 이미 일정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16> 대분류 업종의 동별 집중도 순위(%)

업종	1순위	비중	2순위	비중	3순위	비중	4순위	비중
식료품제조업	부평동	10.4	범일동	7.3				
음료품제조업	범일동	14.0	부전동	8.0				
방직업	범일동	14.0	부전동	13	거제동	11		
의류제조업	초량동	12.2	광복동	10.5	범일동	10.5		
제재및목제품	충무동	21.4	범일동	8.6	부전동	7.1		
제지및동제품	부평동	15.0	신창동	10.0				
인쇄출판	토성동	13.5	대청동	10.8	부평동	10.8	초량동	10.8
피혁및동제품	남포동	29.4	부전동	29.4	범일동	11.8		
화학	가야동	6.2	거제동	5.3	남부민동	5.3		
고무제품	범일동	24.5	부전동	13.2				
유리및토석	남항동	9.3	영선동	9.3				
연료공업	수정동	14.7	범일동	8.8	동천동	8.8	초량동	8.9
금속공업	봉래동	10.4	남항동	9.7	범일동	9.0		
기계공업	대평동	11.9	봉래동	10.1	남항동	9.5	대교동	9.5
전기기기	보수동	9.4	서대신동	9.4	동천동	9.4	초량동	9.4
기타공업	충무동	12.8	부평동	10.3	범일동	7.7	동광동	7.7

Ⅳ. 100대 기업의 분석

앞에서는 5인 이상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 모두를 상대로 분석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종업원수 기준 100대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1,393개의 사업체가 있었지만 100대 기업이 절대적인 중요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대 기업의 분석을 통해 부산 제조업의 특징을 더 압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대분류 기준 업종별로 보면 방직업이 34개로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류제조업 3개까지 합하면 37개가 섬유산업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17개의 고무제품, 12개의 식료품, 8개의 기계로 나타나고 있다. 방직과 의류 그리고 고무를 합하면 54개로 절반을 넘고 있다.

<표 17> 제조업 대분류별 종업원수 기준 100대 기업 분포(개)

업종	식료품 제조업	방직업	의류 제조업	제재및 목제품	제지및 동제품	피혁및 동제품	화학공업
빈도	12	34	3	3	1	1	7

업종	유리및 토석	연료공업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제조업	전기기기 제조업	기타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빈도	3	1	5	8	4	1	17

제조업 중분류 기준 100대 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방직업 33개, 고무화 14개, 기타화학 8개, 운수기계 5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도정및제분업, 전기기기, 철강및금속제품과 어육류제조업이 4개로 뒤를 잇고 있다. 중분류를 보면 더욱 더 방직업과 고무화의 돌출을 확인할 수 있는데, 47개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 시기 부산 대기업의 절반은 방직과 고무화업종이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도 확인이 된다. '부산지대의 대기업 이른바 2억환 이상 자본과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은 식료품업에 제일제당, 음료품업에 대선발효, 직물업에 경남모직, 조선견직, 조선방직, 제재업에 성창기업, 동명목재, 고무제품업에 흥아공업, 국제화학, 동양고무, 신흥고무, 태화고무, 화학공업에 락희화학, 평화유지, 요업에

대한도기, 기계공업에 배창공업, 금성사, 운송기계업에 대한조선, 제분업에 극동제분, 조선제분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전국적으로 부산이 우세한 것은 고무, 제재, 직물, 제당, 화학공업 등이다.'[29]

<표 18> 제조업 중분류별 100대 기업 분포(개)

업종	도정및 제분업	제과및 제이업	어육류 제조업	기타식품 제조업	방직업	표백및 염색업	메리야쓰 제조업	샤쓰 제조업
업체수	4	3	4	1	33	1	1	1

업종	기타 의류	제재업	제지및 동제품	기타 화학	고무화	고무제품	유리및 토석	연료
업체수	1	3	1	8	14	3	3	1

업종	철강및 금속제품	비 철금속	일반 기계	운수 기계	전기 기기	인조빙	전체
업체수	4	1	3	5	4	1	100

그런데 2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약간 다른 모습이 포착된다. 대분류별 20대 기업의 업종별 분포에서 방직 5, 고무 4, 제재및목제품공업 3의 순으로 나타난다. 3업종의 사업체를 합하면 12개로 절반이 넘는다. 2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1962년 현재 부산의 대기업은 방직과 고무화 그리고 합판업에서 주로 분포하였음을 말해준다. 합판산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미 이 시기 몇몇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표 19> 제조업 대분류별 종업원수 기준 20대 기업 분포(개)

업종	방직	연료	고무	전기 기기	유리및 토석	화학	기계	제재및 목제품	식료
사업체수	5	1	4	2	1	1	2	3	1

29) 『동아일보』 1962.2.13.

<표 20> 100대 기업의 구별 분포(개)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서구	영도구	중구	전체
빈도	12	20	50	6	9	3	100

100대 기업의 구별 분포를 보면 정확히 절반인 50개가 부산진구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20개가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다. 부산진구와 동래구를 합하면 꼭 70개가 되어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소재 사업체수를 2배 이상 넘어서고 있다. 전체사업체 수에서는 여전히 원도심이 제조업 중심지처럼 보이지만, 10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1962년도에는 이미 부산 제조업의 중심이 부산진구와 동래구쪽으로 거의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21> 부산 제조업 100대 기업의 동별 분포(개)

동	가야동	거제동	낙민동	남포동	남항동	당감동	대평동
업체수	1	9	2	1	3	2	1

동	동광동	동대신동	명륜동	문현동	범일동	봉래동	부곡동
업체수	2	1	5	2	19	4	3

동	부암동	부전동	수정동	양정동	연지동	영선동	완월동
업체수	4	9	3	4	4	1	1

동	용당동	장전동	적기동	전포동	초량동	충무동	토성동
업체수	1	1	1	9	3	2	2

100대 기업의 동별 분포를 보면 범일동이 1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전동, 전포동, 거제동 각 9개로 나타나고 있다. 그 뒤를 명륜동 5개, 연지동, 양정동, 부암동 각 4개로 나타나고 있다. 원도심의 경우 봉래동 4개가 가장 많고 수정동 3개, 초량동 3개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설립기간별 100대 사업체수의 분포를 보면 일제강점기 6개, 해방직후 20개, 한국전쟁기 19개, 전후복구기 43개, 경제개발준비기 10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었던 기업들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사명을 바꾸거나 하면서 설립연도를 해방이후로 바꾼 것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표 22> 설립연도별 100대 사업체수 분포(개)

	1900-1944	1945-1949	1950-1953	1954-1959	1960-1962	소계	결측	전체
빈도	6	20	19	43	10	98	2	100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사업체는 한국인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이 많았다. 불하된 이후에도 큰 공장으로 남아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도 있었다. 종사자수 기준 100대 기업 가운데 30대 기업에 들어있는 기업 중에서 설립연도를 재검토하였더니 해방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 가운데 실제로는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것이 9개나 되었다. 조선방직(1917), 조선견직(1937), 대한도기(1917), 대한조선공사(1937), 삼화고무(1934), 보생산업(1935) 등은 아주 일찍 설립되었으며 한국전력도 전신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남선합동전기였다. 또 동양견직과 광명목재도 귀속사업체에서 출발하였다[30]. 이에 더하여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었지만 조사대상에서 빠진 대선주조(주) 등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기업의 비중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이 일제강점기에 설립한 기업은 설립연도를 대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성창기업(1931), 동명목재(1925) 등은 사명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설립연도

30) 「귀속재산」(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Index?local=busan, 검색일: 2019. 1.21).

를 표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귀속사업체를 불하받은 경우 대부분 사명변경을 통해 새롭게 설립된 것처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귀속사업체의 불하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잡음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100대 기업의 자본금 규모별 비중을 보면 4천만환 이상이 33개이고, 2천만-4천만환 사이가 9개 그리고 1천만-2천만환 사이의 업체가 10개였다.

<표 23> 자본금 규모별 100대 제조업체수(환, 개)

구분	1-2,000,000	2,000,001-4,000,000	4,000,001-6,000,000	6,000,001-10,000,000	10,000,001-20,000,000
업체수	6	5	7	9	10

구분	20,000,001-40,000,000	40,000,001+	소계	결측	전체
업체수	9	33	79	21	100

종업원 규모별로는 우선 100대 기업에 들기 위해서는 70명 이상의 종사자수를 가진 기업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대한석탄공사부산지점과 한국전력경남지점을 포함하여 종사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12개였다. 100명 미만으로 100대 기업에 들어있는 사업체는 40개였다.

<표 24> 종업원수 규모별 100대 제조업체수(명, 개)

	70-79	80-89	90-99	100-109	110-129
빈도	14	15	11	10	8

	130-159	160-199	200-499	500+	전체
빈도	10	10	10	12	100

한국석탄공사부산지사를 제외한 100대 기업의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를 보았더니 전기기기가 53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전력경남지점의 1,134명이 포함된 영향이다. 그 다음은 제재및목제품으로 361명이고 이어 고무제품제조업이 322.6명, 방직 225.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00대 기업 내에서 전기기기, 제재, 고무 그리고 방직업에서는 평균 2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25> 99대 기업의 업종별 평균 종사자수(명)

업종	식료품제조업	방직업	의류제조업	제재및목제품	제지및동제품	피혁및동제품	화학공업
평균	118.3	225.7	105.3	361.0	130.0	158.0	185.7

업종	고무제품제조업	유리및토석	금속제품제조업	기계제조업	전기기기제조업	기타제조업	합계
평균	322.6	313.7	81.4	246.0	534.0	75.0	233.3

주: 한국석탄공사부산지사를 제외한 것으로 99개 업체의 계산 결과임

Ⅴ. 결론

1962년 초 5인 이상 종사자수를 가지고 있는 부산의 제조업체는 1,393개로 업종별로는 방직업 209개, 식료품제조업 200개, 의류제조업 173개, 기계제조업 168개의 순이었다. 종사자수는 평균 약 30명 정도였는데, 연료공업(308.7명), 고무제품(119.4명), 전기기기(77.9명) 그리고 방직업(56.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료공업의 경우 대한석탄공사부산지점(10,000명)으로 인한 돌출임을 감안하면 업종 전체적으로는 고

무공업과 전기기기 그리고 방직업의 규모가 컸다. 그러나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300명 이상 고용업체는 19개에 불과하였다. 68.5%의 기업이 49명 이하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구별 사업체수의 분포를 보면 부산진구가 2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구 19.9%, 동구 17.7%, 영도구 14.4%의 순이었다. 단일 구로는 부산진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원도심이라 할 수 있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비중이 63.3%로 부산 제조업 전체의 입지는 여전히 원도심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사업체의 동별 분포를 보면 범일동이 127개, 부전동이 93개로 두 동에만 15.8%인 220개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었다. 이어 많은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동은 부평동 67개, 초량동 63개, 전포동 57개, 남항동 56개, 수정동, 56개, 충무동 55개, 범천동 55개, 봉래동 49개 그리고 대교동 45개 순으로 일부의 동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교차분석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설립기간을 변수로 하는 교차분석을 한 결과 업종에 따라 설립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설립된 업종은 음료품공업(20.8%), 인쇄출판(11.1%), 전기기기제조업(9.4%) 등이었다.

설립기간과 구(區)사의의 교차분석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각 구별로 사업체들이 설립된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영도구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해방직후 설립비율이 높았다. 중구와 동구도 해방직후 설립된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후 복구기에 집중적으로 기업설립이 있었는데, 서구, 중구 그리고 부산진구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경제개발 준비기인 1960년 이후에는 동래구, 동구 그리고 부산진구에서 그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다.

종업원규모와 업종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 업종에 따라 종업원규모

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규모별 종업원수와 구(區)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정구에 특정업종이 집중되어 있었다. 규모별 종업원수와 구간별 자본금 사이의 교차분석 결과는 당연하지만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자본금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크고 그러면 당연하게 종사자수도 컸다.

구와 업종간의 교차분석도 유의함이 확인되었는데, 구별로 입지하는 업종에 차이가 있었다. 식료품공업은 중구(29.5%), 방직업은 부산진구(57.4%), 의류제조업은 중구(37.6%), 제지및동제품은 중구(35%), 인쇄출판 중구(54.1%), 화학공업 부산진구(31.9%), 고무제품 부산진구(52.8%), 금속제품 영도구(30.6%), 기계제조업 영도구(41.7%), 기타제조업 중구(48.7%) 등으로 구별로 입지하는 업종에 차이가 있었다.

한편 동을 변수로 하여 업종과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업종별 사업체는 특정 구뿐만 아니라 특정 동에도 더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었다. 식료품과 음료품은 제품의 속성상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료품은 부평동과 범일동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피혁및동제품의 경우 남포동에 29.4%가 집중되어 있으며 고무제품은 범일동에 24.5%가 집중되어 있다. 부산의 제조업은 경제개발시행 이전에 이미 일정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부산경제를 선도하였던 100대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대분류 기준 업종별로 보면 방직업이 34개로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류제조업 3개까지 합하면 37개가 섬유산업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17개의 고무제품, 12개의 식료품, 8개의 기계로 나타나고 있다. 방직과 의류 그리고 고무를 합하면 54개로 절반을 넘고 있다.

그런데 2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약간 다른 모습이 포착된다. 대분류

별 20대 기업의 업종별 분포에서 방직 5, 고무 4, 제재및목제품공업 3의 순으로 나타난다. 3업종의 사업체를 합하면 12개로 절반이 넘는다. 2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1962년 현재 부산의 대기업은 방직과 고무화 그리고 합판업에서 주로 분포하였음을 말해준다. 합판의 경우 사업체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미 이 시기 대기업의 토대를 닦은 기업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100대 기업의 구별 분포를 보면 정확히 절반인 50개가 부산진구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20개가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다. 부산진구와 동래구를 합하면 꼭 70개가 되어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소재 사업체수를 2배 이상 넘어서고 있다. 100대 기업의 동별 분포는 범일동이 1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전동, 전포동, 거제동 각 9개로 나타나고 있다. 그 뒤를 명륜동 5개, 연지동, 양정동, 부암동 각 4개로 나타나고 있다. 원도심의 경우 봉래동 4개가 가장 많고 수정동 3개, 초량동 3개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전체사업체 수에서는 여전히 원도심이 제조업 중심지처럼 보이지만 10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경제개발이 시작되던 1962년도에는 이미 부산 제조업의 중심이 부산진구와 동래구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설립기간별 100대 사업체수의 분포를 보면 일제강점기 6개, 해방직후 20개, 한국전쟁기 19개, 전후복구기 43개, 경제개발준비기 10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었던 기업들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사명을 바꾸거나 하면서 설립연도를 해방이후로 바꾼 것이 많았다. 30대 기업에서 해방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 가운데 실제로는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것이 9개나 되었다.

<부표> 종사자수 기준 부산 제조업 100대 기업(1962.2/부산상공명감)

	업종	중분류업종	기업명	대표자	구	동	설립연도	자본금	종업원수
1	연료	연료	대한석탄공사부산지점	강훈	동구	수정동	1950	20,000,000,000	10,000
2	방직업	방직업	조선방직공업주식회사부산공장	신경호	동구	범일동	1955	200,000,000	2,304
3	고무제품	고무화	국제화학주식회사	양태진	동구	범일동	1947	750,000,000	1,835
4	방직업	방직업	조선견직주식회사	김지태	동래구	거제동	1949	100,000,000	1,200
5	전기기기	전기기기	한국전력주식회사경남지점	이종우	서구	토성동	1961	38,300,000,000	1,134
6	고무제품	고무화	동양고무산업주식회사	현수한	동구	초량동	1953	180,000,000	808
7	전기기기	전기기기	주식회사금성사	구인회	부산진구	연지동	1958	300,000,000	753
8	유리및토석	유리및토석	대한도기주식회사	최유상	영도구	봉래동	1952	20,000,000	700
9	화학공업	기타화학	락희화학공업사	구인회	부산진구	연지동	1953	3,500,000,000	620
10	기계	운수기계	대한조선공사	이영진	영도구	봉래동	1950	100,000,000	603
11	기계	운수기계	한국기계주물제작소	김일렬	영도구	영선동	1959	50,000,000	600
12	고무제품	고무화	신흥고무화학공업주식회사	김명오	동래구	거제동	1949	150,000,000	530
13	고무제품	고무화	유한회사태화고무공업사	신금봉	부산진구	당감동			452
14	방직업	방직업	경남모직공업주식회사	김한수	부산진구	전포동	1956	100,000,000	449
15	제재및목제품	제재업	성창기업주식회사	정태성	동구	적기동	1931	2,000,000	418
16	제재및목제품	제재업	동명목재상사	강석진	부산진구	범일동	1925		369
17	방직업	방직업	동양견직주식회사	정상용	동래구	거제동	1959		344
18	방직업	방직업	명신산업주식회사	정상용	부산진구	문현동	1956	50,000,000	337
19	식료품	도정및제분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조홍제	부산진구	전포동	1953	2,500,000,000	316
20	제재및목제품	제재업	광명목재주식회사	박명수	동구	범일동	1946	10,000,000	296
21	고무제품	고무화	한양화학공업사	박학병	부산진구	부전동	1948	100,000,000	292
22	기계	일반기계	배창공업주식회사	정순조	동래구	장전동	1961	50,000,000	220
23	고무제품	고무제품	삼화고무공업주식회사	이택주	부산진구	범일동	1954	150,000,000	192
24	방직업	방직업	유천산업사	유지연	동래	거제동	1957	150,000,000	190
25	고무제품	고무제품	동아공업유한회사	정기옥	부산진구	전포동	1951	5,800,000	190
26	화학공업	기타화학	미진화학섬유공업사	이상봉	부산진구	양정동	1959	250,000,000	180
27	고무제품	고무제품	보생산업주식회사	이동인	부산진구	부전동	1955	70,000,000	180
28	기계	일반기계	의신기계제작소	이광수	동래구	부곡동	1955	50,000,000	175
29	방직업	방직업	미진화학섬유주식회사	이상봉	부산진구	양정동	1959	100,000,000	170
30	방직업	방직업	온천직물공장	김덕원	동래구	부곡동	1954	30,000,000	160
31	고무제품	고무화	동화화학공업사	장우룡	부산진구	범일동	1946	10,000,000	160
32	고무제품	고무화	삼일고무공업사	이용삼	동구	범일동	1946	60,000,000	160
33	방직업	표백및염색	신한모직가공주식회사	김장호	부산진구	양정동	1956	50,000,000	158

	업종	중분류업종	기업명	대표자	구	동	설립연도	자본금	종업원수
34	화학공업	기타화학	평화유지공업주식회사	김을출	동래구	거제리	1954	150,000,000	158
35	유리및토석	유리및토석	적기채석장	황영환	부산진구	용당동	1960	6,000,000	156
36	식료품	어육류	진양산업주식회사	이종렬	영도구	남항동	1958		148
37	식료품	제과및제이	홍아산업주식회사	윤종근	중구	남포동	1961	50,000,000	147
38	전기기기	전기기기	제일전기화학공업주식회사	장장식	동래구	명륜동	1960	100,000,000	140
39	화학공업	기타화학	국제유기화학공업사	양한석	부산진구	부암동	1954	85,000,000	138
40	방직업	방직업	부산방직공사	이원갑	부산진구	가야동	1953	25,000,000	137
41	방직업	방직업	화신직물주식회사	최영수	동래구	거제동	1955	5,000,000	132
42	제지및동제품	제지및동제품	부산제지주식회사	정상철	중구	동광동	1947	50000000	130
43	의류	샤쓰	시대복장주식회사	이위형	서구	토성동	1951	5,000,000	129
44	방직업	방직업	태광산업주식회사	이임용	부산진구	문현동	1961	10,000,000	127
45	고무제품	고무화	대원고무공업합자회사	김필훈	부산진구	부전동	1948	3,000,000	125
46	식료품	제과및제이	홍산비스켓공사	안관성	동구	범일동	1957	30,000,000	118
47	방직업	방직업	동광직물공업사	황진성	부산진구	부전동	1951	72,000,000	116
48	기계	운수기계	한국경공업주식회사	박창희	서구	완월동	1949	100,000	114
49	방직업	방직업	태창기업공사	황래성	부산진구	전포동	1957	200,000,000	113
50	방직업	방직업	대륭흥업공사	오인환	동래구	부곡동	1942	30,000,000	111
51	전기기기	전기기기	조흥전전지공업주식회사	박영엽	부산진구	부암동	1954	10,000,000	109
52	식료품	어육류	천일기업주식회사	김경준	부산진구	부전동	1933	600,000	108
53	방직업	방직업	태양직물주식회사	김명우	동래구	거제동	1954	3,000,000	105
54	기계	운수기계	주식회사대선조선철공소	안성룡	영도구	봉래동	1945	20,000,000	105
55	방직업	방직업	동양방직공사	이영업	중구	동광동	1950	150,000,000	102
56	화학	기타화학	락희유지공업주식회사	구인회	부산진구	초읍동	1959	200,000,000	102
57	방직업	방직업	동광기업주식회사	김순석	부산진구	당감동	1961	100,000,000	100
58	화학	기타화학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	박임봉	부산진구	범일동	1959	50,000,000	100
59	고무제품	고무화	남창화학공업주식회사	신남철	부산진구	전포동	1947	5,000,000	100
60	고무제품	고무화	합성화학공업사	윤인재	부산진구	범일동	1947	7,000,000	100
61	방직업	방직업	도남직물주식회사	문성준	부산진구	양정동	1954	8,000,000	98
62	고무제품	고무화	대영고무공업사	조용현	부산진구	부전동	1954	10,000,000	98
63	고무제품	고무화	일신고무공업사	왕락규	부산진구	범일동	1951	3,600,000	98
64	의류	메리야쓰	대일섬유공업주식회사	김규태	부산진구	전포동	1956	30,000,000	97
65	금속제품	철강및금속	삼인산업주식회사	박소근	동구	수정동	1960	20,000,000	97
66	식료품	제과및제이	한미산업주식회사	나진희	부산진구	연지동	1955	20,000,000	95
67	방직업	방직업	보금직물공장	최동식	부산진구	부전동	1954	23,259,000	93

	업종	중분류업종	기업명	대표자	구	동	설립연도	자본금	종업원수
68	방직업	방직업	조흥직물공업사	양학진	부산진구	부암동	1950	73,600,000	93
69	방직업	방직업	평화직물주식회사	이세규	부산진구	범일동	1954	30,000,000	90
70	의류	기타의류	주식회사태창사	박용태	동구	초량동	1951	2,000,000	90
71	화학공업	기타화학	천광산업	김효신	부산진구	부암동	1954	45,000,000	90
72	식료품	도정및제분	신한제분주식회사부산공장	김용성	영도구	남항동	1956	300,000,000	89
73	방직업	방직업	금정후직주식회사	김유근	동래구	낙민동	1952	5,000,000	89
74	식료폼	기타식료품	동아화성공업주식회사	임대홍	부산진구	범일동	1956	100,000,000	85
75	고무제품	고무화	덕원고무공업사	정호윤	부산진구	전포동	1945	10,000,000	85
76	유리및토석	유리및토석	신광초자공업사	박광석	서구	동대신동	1939	50,000,000	85
77	방직업	방직업	동아직물공업주식회사	천완의	동래구	명륜동	1953	3,000,000	84
78	방직업	방직업	서면타올공업사	박동수	부산진구	부전동	1951	50,000,000	84
79	방직업	방직업	조양직물주식회사	김려우	부산진구	범일동	1947	100,000	83
80	금속제품	철강및금속	삼양산업주식회사	김태훈	서구	충무동	1954	3,000,000	83
81	방직업	방직업	유한직물공업사	유치운	동래구	거제동	1957	70,000,000	82
82	식료품	도정및제분	남선곡산주식회사	오명구	부산진구	전포동	1944	5,000,000	80
83	식료품	어육류	대한식품공업주식회사	손천영	영도구	남항동			80
84	식료품	어육류	부산수산공업주식회사	황실근	영도구	대평동	1956	20,000,000	80
85	고무제품	고무화	영신고무합자회사	조맹여	동구	범일동	1946	1,500,000	80
86	금속제품	철강및금속	부산신철공업주식회사	유명득	부산진구	범전동	1958	20,000,000	80
87	방직업	방직업	제일산업사	전환영	부산진구	범일동	1954		78
88	방직업	방직업	천일직물공장	김재룡	부산진구	전포동	1946	100,000,000	78
89	기계	일반기계	현대산업주식회사	박경복	부산진구	부전동	1960	10,000,000	78
90	방직업	방직업	선산직물공업사	서무현	동래구	명륜동	1961		77
91	방직업	방직업	해동직물공장	이기성	동래구	거제동	1957	30,000,000	77
92	금속제품	비철금속	신생금속공업주식회사	주창균	영도구	봉래동	1954	20,000,000	75
93	기타제조업	인조빙	신흥냉동주식회사	왕윤국	서구	충무동	1956	12,500,000	75
94	식료품	도정및제분	조선제분주식회사	정목영	동구	수정동	1953	50,000,000	73
95	기계	운수기계	정공사도금공업사	이상덕	부산진구	범일동	1947		73
96	방직업	방직업	고려직물공장	윤기효	동래구	명륜동	1945	110,000,000	72
97	방직업	방직업	동아면업공업사	추삼득	부산진구	범일동	1949	30,000,000	72
98	금속제품	철강및금속	극동철강공업주식회사	이원재	동래구	낙민동	1958	100,000,000	72
99	방직업	방직업	국제훼트공업사	김준봉	부산진구	연지동	1959	20,000,000	70
100	화학	기타화학	율곡인촌화학공업사	박종곤	동래구	명륜동	1953	20,000,000	70

| 참고문헌 |

1. 저서 및 논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한국표준산업분류』, 제1권, 1962.
김대래,『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공업』, 효민, 2006.
_____,『부산 귀속사업체연구』, 효민, 2006.
_____,『부산의 기업과 경제』, 세화, 2013.
_____,「서장」,『한국전쟁과 부산경제 : 경부성장축의 강화』, 해남, 2010.
김대래,「한국 합판산업 통계의 정비와 기초적 분석」,『산업경제연구』29-1, 2016.
김대래・배석만,「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 1945~1960 -부산지역을 중심으로-」,『경제사학』제33호, 2002.
김대래・배석만,「미군정기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접수에 관한 연구」,『항도부산』24, 2008.
_____,「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화학산업을 중심으로-」,『항도부산』25, 2009.
김대래・정이근 편,『한국전쟁과 부산경제 : 경부성장축의 강화』, 해남, 2010.
김호범·장지용 외,『20세기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이해와 부산경제의 변동분석』, 부산광역시, 2004.
남조선 과도정부 중앙경제위원회,『남조선 산업 노무력 및 임금조사』, 1948.
대한상공회의소,『전국기업체총람』, 1958.
대한상공회의소,『전국기업체총람』, 1963.
박영구,『부산의 제조업, 1900~2000(Ⅱ) 현대부산의 제조업 1945~2000-통계와 발전-』, 부산발전연구원, 2005.
_____,「부산의 제조업 : 충격과 대응」,『한국전쟁과 부산경제-경부성장축의 강화-』, 해남, 2010.
배석만,「1950년대 대한조선공사의 자본축적시도와 실패원인」,『부산사학』25·26합집, 1994.
_____,「해방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공업구조의 변화」,『항도부산』16, 2000.
_____,「미군정기 부산항과 도시민생활」,『지역과 역사』5, 1999.
_____,「해방후 조선방직의 경영과 그 성과」,『지역과 역사』9, 2001.
_____,「1950년대 부산 고무공업의 구조변화」,『역사와 현실』44, 2002.
_____,「조선중공업주식회사의 전시경영과 해방 후 재편과정」,『역사와 경계』60,

2006.
부산상공회의소,『업종별 공장조업상황 집계표-1962년 상반기-』, 1962.
_____,『부산상공명감』, 1962.
_____,『부산경제사』, 1982.
_____,『부산상의사』, 1989.
상공부,『공장광산명부』, 1950.
조선은행조사부,『조선경제연감』, 1948.
중소기업은행,『광업 제조업 사업체조사보고』, 1962.
_____,『광업제조업 사업체명부』, 1964.
차철욱,「1950년대 전반기 輸入割當制의 運營과 貿易業者의 동향」,『역사와 경계』 24, 1993.
_____,「미군정기 한일무역의 성격」,『부대사학』 22, 1998.
_____,「1950년대 대일 수입구조와 부산 인견직물업의 변화」,『역사와 현실』 44, 2002.
_____,「제2공화국의 대일무역정책과 무역구조의 성격」,『韓國民族文化』 13, 1999.
한국은행조사부,『광업 및 제조업사업체명부』, 1956.

2. 기타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투고일 : 2018. 11. 09. **심사완료일 :** 2018. 12. 06. **게재확정일 :** 2018. 12. 14.

| Abstract |

A Microscopic Analysis on Busan Manufacturing in Early Economic Development Era
- Focused on the Analysis of Busan Commerce and Industry Directory in 1962 -

Kim, Dae-Rae

This paper is a micro-research of Busan's manufacturing industry in early 1962, the year when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began. We carefully analyzed the manufacturers in the Busan Commerce and Industry Directory. First, there were 1,393 manufacturers in Busan with more than five employees, and th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was about 30. The factories were located in most in Busan Jin-gu, followed by Jung-gu, Dong-gu and Yeongdo-gu. The factories were still overwhelmingly concentrated in the old city. By contrast, most factories were in Bumil-dong and Bujeon-dong.

Depending on the district(Gu), the era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irms varied, and the size of the employees varied depending on the industry. Certain industries were concentrated in certain districts. Thu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businesses that each district had. The same was true of the Dong. Certain industries were more concentrated in a particular area.

Among the 100 largest companies, 34 were textile companies. Next was 17 rubber product industries, 12 food industries, and 8 machinery industries. The textile industries with 3 clothing and rubber industries together account for more than half of the total, or 54.

Of the top 100 companies, exactly 50 were distributed in Busan-jin gu. Next, 20 were located in Dongnae-gu.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manufacturers remained at the old city, the top 100 companies differed. Busan’s manufacturing center has already shifted to Busan Jin-gu and Dongnae-gu. Meanwhile, we couldn't find many businesses that were established in Japanese occupation. This was because many firms changed their name and worked as newly established ones after the liberation.

Keywords : Busan, Manufacturing, Right before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Industry, Loation